

후회와 절망에게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 해안을  
갖춘 분이지.

그러니 불행에 처하더라도 자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은  
이것일세. 내가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다. 그렇다면 자네가  
개탄하는 것이 비르지니의 불행, 그녀의 최후, 그녀의 현재  
상태인가? 비르지니는 귀족 가문과 아름다움에 지워진 운  
명을, 제국조차 면치 못한 운명을 따랐던 게야. 인간의 삶  
은, 그가 도모해온 모든 일과 더불어, 죽음의 정점을 이루는  
작은 탐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린다네. 태어남과 동시에 그  
녀는 죽을 것을 인도받았던 것이야. 자기 어머니에 앞서,  
자네 어머니에 앞서, 자네에 앞서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났  
으니, 말하자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몇 번이고  
생을 다하지 않게 되었으니 비르지니로서는 복된 일인 셈  
이지!

이보게,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일세. 죽음은  
우리가 생이라 부르는 이 불안한 하루의 밤인 것이야. 살아  
있는 불행한 자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병과, 고통  
과, 슬픔과, 두려움이 영원한 안식에 드는 것도 죽음이라는  
잠 속에서일세.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  
게나. 그러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 
비싼 대가를 치르고 샀음을 알게 될 걸세. 가정의 화(禍)로  
대중의 존경을 사고, 건강을 잃고 부를 사지. 또 계속되는  
희생을 통해, 사랑 받는 데서 오는 그 둘도 없는 기쁨을